

영암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 '성료'

올해 9회 맞아...문세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이수빈 교육부 장관상 수상

영암군은 지난 25일 '제9회 영암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를 (사)김창조 산조보존회와 함께 가야금산조기념관 내 실내공연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가야금창작 3개 분야에서, 일반부, 학생부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예심은 비대면 영상 파일로 심사하였다.

이번 대회는 본선 진출자 20명이 경연하여 일반부 종합대상에 가야금창작 부문에 문세미(한국예술종합학교)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학생부 종합대상에 가야금 병창 부문 이수빈(경북예술고) 학생



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가야금 병창 부문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심소현, 중등부 대상에 박은율, 초등부 대상에 신서윤, 초등

부 단체 대상에는 영암어린이가야금 연주단이 각각 수상했다.

가야금산조 부문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어윤석, 고등부 대상에 정현지, 중등부 대상에 어다현, 초등부 대상에 김유림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국악대회는 14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가야금 창작 3개부문에 총 41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9회째를 맞는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는 김창조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전도유망한 신진 국악인들을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국악 경연 대회로 자리매김하여 가야금산조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2개월간 '콩자동화선별장' 운영

농업인들 노동력 절감·품질향상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

영광군은 본격적인 콩 수확철에 맞아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콩 품질 향상을 통해 상품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콩자동화선별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콩자동화선별장은 대부분의 영세농들이 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선별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력 절감 등 선별작업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선별작업 대상은 서리태, 매주콩, 나물콩, 팥, 녹두 등으로 분류하여 자동화선별기 8대를 운영하고 이용료는

1포당(40kg) 1천 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콩 재배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별장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본격적인 콩 선별 시기에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17구당 1일 선별량을 30포(40kg/포당)로 제한하고 반드시 콩 각지 등 이물질 제거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콩 자동화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별기와 부대시설 정비를 마쳤으며, 운영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한반도 반대편 김해시에 신안군 도로가 생긴다"

자매도시 상호 교류 일환·신안천사대로·하의로 지정

신안군을 상징하는 명칭을 딴 명예도로 '신안천사대로', '하의로'가 자매결연도시인 김해시 일원에 지정될 예정이다.

1004십 신안군을 알리는 '신안천사대로'는 김해시 진영읍을 관통하는 김해대로의 일부 8.7km구간에, 해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을 상징하

는 '하의로'는 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며 생가가 위치한 봉하로 일원 8.7km구간으로 지정되어 명명될 계획이다.

김해시의 명예도로명 부여는 지난해 9월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난 14일 신안군 하의도에서 '김해시의

섬 하의도' 선포식 및 신안군과의 자매결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 제막식에 상응하는 자매도시 상호 교류의 일환이다.

양 지자체는 두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동질성 배경을 바탕으로 신안군 하의도를 '김해시의 섬'명에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의면 태극공원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 조형

물을 설치하고 제막식과 선포식을 가진바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두 시군이 명예 행정구역과 명예 도로명을 서로 부여함으로써 두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과 평화의 뜻을 계승하고 나아가 영·호남 공동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안군을 상징하는 명예도로명이 자매도시 김해시와의 상호 우호관계 홍보역량이 되고 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류 협력의 포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요양병원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무안군은 10월 26일부터 4일간 관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23개소 종사자 642명에 대해 보건소 검체반 6팀 25명을 투입하여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검사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최근 부산지역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검사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일 시설 내 검사대상에 대한 검체취합(폴링)검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이상익 함평군수, 벼베기 영농현장 격려

신광면·손불면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농정 현안 점검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 22일 지역 영농현장을 방문해 벼 수확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날 이 군수는 신광면과 손불면 벼 수확현장을 찾

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정 현안을 점검했다.

이 군수는 품바인 윤전을 직접 시연하면서 농민들 고통을 직접 겪고 농기계 임대 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함평=김광준 기자

목포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목포시는 2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한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종합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매년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있는 도시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2000년 최초로 도입된 평가이다.

이번 평가는 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 등 4개 부문 72개 지표에 대해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실시하여, 목포시는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종합평가에서 중소도시 중 1위인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목포시는 4개 부문에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도시환경 부문에서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지속적인 보행 환경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우수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에



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 산업단지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중·소도시 중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이번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의 최우수상 수상으로 목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 방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도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